농촌진흥청 동정 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즉시 배포 배포 2026. 11. 14.(토)

농촌진흥청장, 전북 지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발생 동향 및 생육 점검

- "행정력·기술력 모아 피해 농가 회복 돕고, 추가 확산 철저 차단"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1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탄동에서 토마토 재배 농업인을 만나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발생에 따른 피해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울러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지역 내 토마토 바이러스 발생 동향을 보고 받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방제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며 농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전북 익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해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바이러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11.13. 기준) 전북(63), 경남(26), 충남(15), 부산(10), 전남(2), 충북(1) 6개 시도 117개 농가에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 유입이 확인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검역 관리급 병해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심의회'를 열고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적 방제 추진을 결정했다.

이승돈 청장은 "공적 방제 결정에 따른 폐기 농산물 보상 등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 농가 및 토마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바이러스가 확진된 농가에서는 철저한 방제 이행과 함께 식물체·작업 도구·농자재 등의 외부 반출금지와 작업자 출입 통제를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식물 바이러스에 감염된 농작물은 시중 유통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토마토 소비 위축이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원택 지사는 "조속한 예산 확보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가 발생한 농가는 공적 방제기준에 따라 감염 식물체를 폐기하고, 내부 시설과 농자재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이후 바이러스 잔존 검사를 통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토마토 재정식을 할 수 있다.

붙임.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발생 현장(전북 익산) 방문 일정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병진 (063-238-1040)
		담당자	연구관	경은선 (063-238-104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발생 현장(전북 익산) 방문 일정**

❑ 개요

○ **일　　시**: **2026. 11. 14.(토) 16:00**

○ **장　　소**: 전북 익산시 석탄동

○ **내　　용**: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현장 대응 점검

❑ 일정표

시 간		주 요 내 용
16:00~16:15	15′	○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현황 청취** * 현장 보고: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16:15~16:40	40′	○ **토마토 농가 의견 청취 및 향후 대책 논의**